

2024. 1. 7. 오후 1 시, In-Person & YouTube Online

블랙스버그한인교회 주일예배 (신년 예배)

설교: 임동진

본문: 다니엘 Daniel 3:1-7

제목: 우리가 머무는 이 땅에서

설교 32 분, 10 페이지, p10-19

본문 읽기

(표준새번역) 3:1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그
신상은 높이가 예순 자, 너비가 여섯 자였다.**

**(ESV) 3:1 King Nebuchadnezzar made an image of
gold, whose height was sixty cubits and its
breadth six cubits. He set it up on the plain of
Dura, in the province of Babylon.**

3:2 느부갓네살 왕이 전령들을 보내서, 지방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게
하였다.**

**3:2 Then King Nebuchadnezzar sent to gather the
satraps, the prefects, and the governors, the
counselors, the treasurers, the justices, the**

magistrates, and all the officials of the provinces to come to the dedication of the image that King Nebuchadnezzar had set up.

3:3 그래서 지방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모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섰다.

3:3 Then the satraps, the prefects, and the governors, the counselors, the treasurers, the justices, the magistrates, and all the officials of the provinces gathered for the dedication of the image that King Nebuchadnezzar had set up. And they stood before the image that Nebuchadnezzar had set up.

3:4 그 때에 전령이 큰소리로 외쳤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모든 백성들은 들으시오. 모든 백성에게 하달되는 명령이오.

3:4 And the herald proclaimed aloud, "You are commanded, O peoples, nations, and languages,

3:5 나팔과 피리와 거문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3:5 that when you hear the sound of the horn, pipe, lyre, trigon, harp, bagpipe, and every kind of music, you are to fall down and worship the golden image that King Nebuchadnezzar has set up.

3:6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오."

3:6 And whoever does not fall down and worship
shall immediately be cast into a burning fiery
furnace."

3:7 그리하여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모든 백성들은, 나팔과
피리와 거문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3:7 Therefore, as soon as all the peoples heard the
sound of the horn, pipe, lyre, trigon, harp,
bagpipe, and every kind of music, all the
peoples, nations, and languages fell down and
worshiped the golden image that King
Nebuchadnezzar had set up.

왕의 환상을 해석한 후, 2:48 절. 다니엘은 바빌론
모든 지역 통치자와 지혜자의 우두머리로 세워지고,

2:48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빌론
지역의 통치자와 바빌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2:48 Then the king gave Daniel high honors and many great gifts, and made him
ruler over the whole province of Babylon and chief prefect over all the wise men of
Babylon.

49 절. 세 친구들은 바빌론 지방을 맡는 책임자가
됩니다.

2:49 또 왕은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빌론 지방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게 하였다. 다니엘은 왕의 궁전에 머물렀다.

2:49 Daniel made a request of the king, and he appointed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over the affairs of the province of Babylon. But Daniel remained at the king's court.

다니엘과 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은 자기 조국 유다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 바벨론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이 땅에 에 머물러 있습니다, ‘잠시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있습니다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로 알려진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지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지도 중간에 바벨론의 수도 바빌론이 있고, 파란색 원이 바벨탑이



세워졌던 시날 평지이며, 빨간색 원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두라 평지입니다.

시날 평지의 바벨탑도, 두라 평지의 금신상도, 오늘 이시대의 문명도 모두 세상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니 잠시 머무는 이곳이 우리 나라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공부하며 성장한 곳은 유대땅이 아니라 바벨론이었고,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곳도 거룩한 땅이 아니라, 세상 문명과 기술의 중심지 시날(바벨)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두라 평지(빨간원) 부근의 '하란'을 거쳐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땅으로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처럼, 다니엘과 세친구처럼 지금 우리도 이 땅에, 이 세상에 잠시 머물러 있습니다.

언어가 다른 나라, 문화와 가치관이 다른 나라에 살면서 불편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안락하고, 만족스럽다면 그건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

이 땅 문화 속에서 이 땅의 가치관과 충돌하며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불편함과 부대낌이 없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겪는 불편함 말구요, 세상 사람들 다
겪는 고생 말구요, 세상 사람들 다 겪는 불만족 말구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겪는 그 억울함과
불편함과 고생과 눈물이 없다면, 예수 다시
믿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향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지만, 우리 진짜 집(성경은 '본향'이라고 부르는)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뒤 예수님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땅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너무 큰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정치에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첨단 기술과 과학에 너무 심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면, 딱 거기까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 중에, 성도들 간의 대화 중에 정치 공방을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도록 두십시오. 예수님이 마 8:22 에서 하신 말씀이 그 의미일 겁니다.

(표준새번역) 마태복음 8:22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들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ESV) Matthew 8:22 And Jesus said to him, "Follow me, and leave the dead to bury their own dead."

돈 좋지요, 하지만, 돈에 매여 살진 마십시오. 많이 배우고,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더

가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공부 열심히 해서, 일 열심히 해서 성공하시고, 부자 되셔서, 하나님 나라와 옆 사람들, 이웃들에게 막 퍼 주십시오. 우리는 여기 머물다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요한계시록(18:5)의 표현으로 보면, 바벨론은 세상의 권력과 돈의 중심에 서 있다가 멸망하는 도시입니다.

(표준새번역) 요한계시록 18:5 그 여자(바벨론)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ESV) Revelation 18:5 for her sins are heaped high as heaven, and God has
remembered her iniquities.

왜 심판받고 멸망하는 대표가 ‘바벨론’이며, 그래도 수십년간 살아가야 하고 착한 사람들도 있고, 관찮은 사람들도 많은데, 꼭 그렇게까지 세상을 멀리 해야 합니까? 네, 우리가 잠시 머무는 이 땅은 전혀 다른 가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다른 가치를 따릅니다

2:46 절, 느부갓네살이 청년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까지 합니다. 47 절. 다니엘의 하나님을 가장 높은
 으뜸가는 신이며, 모든 통치자들 중에 가장 높은
 군주라고 ‘찬양’까지 합니다.

2:46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을 내렸다.

2:46 Then King Nebuchadnezzar fell upon his face and paid homage to Daniel, and
 commanded that an offering and incense be offered up to him.

47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2:47 The king answered and said to Daniel, "Truly, your God is God of gods and
 Lord of kings, and a revealer of mysteries, for you have been able to reveal this
 mystery."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너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구나, 그래 종교 하나 정도는
 믿으면 좋지, 마음도 편안해지고, 기도도 하고’라고
 인정해 줄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신이 있다고
 믿는다’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던 느부갓네살을 보십시오.

3:1 절. 높이 2 미터, 폭 2.7 미터의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표준새번역) 3:1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그 신상은 높이가 예순 자, 너비가 여섯 자였다.

(ESV) 3:1 King Nebuchadnezzar made an image of gold, whose height was sixty
cubits and its breadth six cubits. He set it up on the plain of Dura, in the province of
Babylon.

3:2 절, 자기 권력으로 모든 행정, 법, 재정 관리들을
그 신상 제막식에 강제로 참석시킵니다.

3:2 느부갓네살 왕이 전령들을 보내서, 지방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게 하였다.

3:2 Then King Nebuchadnezzar sent to gather the satraps, the prefects, and the
governors, the counselors, the treasurers, the justices, the magistrates, and all the
officials of the provinces to come to the dedication of the image that King
Nebuchadnezzar had set up.

3:4 절, 모든 관료들을 앞에 세우고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3:4 그 때에 전령이 큰소리로 외쳤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모든 백성들은
들으시오. 모든 백성에게 하달되는 명령이오.

3:4 And the herald proclaimed aloud, "You are commanded, O peoples, nations,
and languages,

3:5 절, 악기 소리가 나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고 합니다. 조금 전 보았던 느부갓네살의 말은

‘하나님이 제일 높은 분이 맞고,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3:5 나팔과 피리와 거문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3:5 that when you hear the sound of the horn, pipe, lyre, trigon, harp, bagpipe, and every kind of music, you are to fall down and worship the golden image that King Nebuchadnezzar has set up.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갑니다. 3:6 절, 절하지 않으면 그자리에서 화덕(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3:6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요."

3:6 And whoever does not fall down and worship shall immediately be cast into a burning fiery furnace."

기독교와 성경의 ‘사랑’은 좋은 것이라고 추켜세웁니다. 아기 예수가 온 세상을 위해 오셨다고 자기들이 더 좋아하고 파티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자기들의 행동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극혐하며,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들에게 권력이 있다면, 느부갓네살처럼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몇 번이고 확인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바벨론)의 태도입니다.

세상은 우리와 다른 방향으로 보고, 다른 것을 추구하며, 다른 하나님을 믿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가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두시렵니까! 아직도 세상을 놓아버리기가 아까우십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보란듯이 성공하고, 성취해서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머리 좋고, 노력도 해왔고,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 앞으로 더 잘해서 꼭 이루실 겁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으실 겁니다. 그것이 진정 여러분이 원하는 삶입니까!

2024 년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올해에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 목표를 이루시고, 그 소원을 꼭
쟁취하십시오. 그래서 블랙스버그에 오셨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발을 당해서 왕 앞에
붙잡혀 와서, 7 배나 뜨거운 풀무불(화덕, 벽돌 굽는
가마) 앞에 서서 하는 말을 들어 보십시오.

**(개역개정) 다니엘 3: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ESV) Daniel 3:16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answered and said to the king, "O Nebuchadnezzar, we have no need to answer you in this matter.

**17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7 If this be so, our God whom we serve is able to deliver us from the burning fiery furnace, and he will deliver us out of your hand, O king.

**18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8 But if not, be it known to you, O king, that we will not serve your gods or worship the golden image that you have set up."

올해 2024년에는 세상과 논쟁하지 마시고, 세상에
구구절절 우리의 행동을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올해에는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
 움츠러들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올해에는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 그 사람과
 타협하지 마시고, 결단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서 능히 여러분을 건져 내어 주실 것이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서

- 2024 년, 올해에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소서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 우리가 잠시 머물러 있는 이 땅에 너무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너무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하늘 소망 품고 살게
 하소서

폐회 찬송: 552 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통 358)

아침 해가 돋을 때

552

찬송가, 1908

이간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마 5:16)

SUNSHINE MINUTES: 7.7.7.7. REF.

찬송가, 1908

보통으로

1.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 선 하 여 라
 2. 새 로 오 가 는 돌 광 음 때 을 만 보 람 신 있 게 보 내 고
 3. 한 번 가 주 면 안 오 는 여 보 빠 른 있 광 지 내 날
 4. 밤 낮 주 를 위 하 는 여 몸 과 맘 음 을 드 리 고

나 도 세 상 지 널 때 햇 빛 되 게 하 소 서
 주 의 일 시 상 을 행 할 때 햇 빛 되 게 하 소 서
 주 의 사 랑 나 타 내 햇 빛 되 게 하 소 서

후렴
 주 여 나 를 도 우 사 세 월 허 송 앎 고 서

어 든 세 상 지 널 때 햇 빛 되 게 하 소 서 아 멘

아침 해가 돋을 때

새해(송구영신)

소그룹에서 나눌 질문들

(2023.1.7 우리가 머무는 이 땅에서, 다니엘 3:1-7)

1. 2024 년 올해의 바람과 계획을 나누어 봅시다.
2.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고 불편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겪지 않았을...)
3. 우리가 잠시 머물러 있는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미련을 두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떤 것이 제일 마음에 걸리십니까?
4. 위에서 나누었던 내용과, 각자의 2024 년 기도 제목을 두고 서로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